

KOFIC 현안보고 2023_Vol.05

Korean Film Council

국가별 영화 오프닝 크레딧 사례조사 연구

KOFIC 현안보고 2023_Vol.05

국가별 영화 오프닝 크레딧 사례조사 연구

글 : 김필남(영화평론가)
자문 : 이종철 (독립연구자 및 문화기획자)

발행인 박기용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담당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문화연구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전화 051)720-4700
팩스 051)729-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ISBN 978-89-8021-239-2 (95680) (PDF전자책)
©영화진흥위원회, 2023

목 차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대상 및 방법	2
3. 오프닝 크레딧의 의미와 통계적 흐름	3
4. 2022년도 국가별 오프닝 크레딧 분석	4
4.1 한국영화	4
1) 한국 일반영화	4
2) 한국 독립영화	10
4.2 미국영화	14
4.3 프랑스영화	16
4.4 일본영화	18
4.5 중국영화	19
5. 결론 및 정책 제언	26



1. 조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한 해 동안의 5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오프닝 크레딧 표기 방식을 점검하여 한국영화 오프닝 크레딧의 표기 가이드를 제안하고 영화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먼저 영화에서의 크레딧의 경우, 본래 작품의 창작과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을 공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엔딩 크레딧뿐 아니라 오프닝 크레딧에서 창작과 무관한 개별 직무에 등재된 영화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 한국영화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경우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투자 배급사 및 임직원의 이름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22년도 5개국 박스오피스 대상작¹⁾을 중심으로 오프닝 크레딧 표기를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2018년 <한국영화 크레딧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한국영화 크레딧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구되었듯이, 한국영화 크레딧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영화(미국, 멕시코, 프랑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먼저 2022년도 박스 오피스 영화들도 그렇지만 투자배급사의 대표와 직원이 프로듀서에 앞서 나오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가 유일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특수한 국가이기에 중국을 제외하면, 투자배급사의 대다수 직원들이 등장하는 크레딧을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외국 영화에서 등장하는 Executive Producer의 역할이 한국에서 관성적으로 인지되어 온 투자배급사 대표 또는 책임자가 아닌 영화 제작 시 제작비의 투자 유치에 기여한 자라고 한다면, 투자 배급사 관계자는 단 한명도 크레딧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배우 매니지먼트사 관련 크레딧과 홍보 마케팅 관련 크레딧도 외국의 명기 기준과도 다르다.²⁾

영화 오프닝 크레딧 사례조사의 구성 방식은 이와 같다. 먼저 오프닝 크레딧의 조사 대사 및 방법, 오프닝 크레딧의 의미와 그 흐름, 2022년도 한국·미국·프랑스·일본·중국의 오프닝 크레딧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후 한국영화의 주요 창작군과 현장 후반 스태프들, 영화 관객들의 설문조사 등까지 나아가, 영화 오프닝 크레딧 표기 만족도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화인 및 영화관객들도 이 연구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인정하며 오프닝 크레딧과 관련된 이슈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개선 필요성 제고 및 기존 관행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오프닝 크레딧 사례조사는 표준적인 대안의 마련보다는, 영화 산업의 생태계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는 기존 자유롭게 작성되던 한국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방식이 타국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창작인들은 물론 일반관객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두고자 한다.

1) 박스 오피스 개봉작 수급 및 연구 기점 등을 고려해 이 연구는 2022년 10월 이전 개봉한 작품들을 기준으로 박스오피스 10위 작품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2)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크레딧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한국영화 크레딧 개선에 관한 연구』, 2018, 12쪽.



2. 조사대상 및 방법

한국영화 오프닝 크레딧 표기가 최근 들어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년에 개봉된 영화³⁾ 중 일반영화 10편, 독립/예술영화 10편으로 해서 총 20편의 오프닝 크레딧을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에 발견된 특징들이 외국영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OCUS 2022 박스오피스 통계 상위 4개 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영화도 각 10편 내외의 오프닝 크레딧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각 국가별 영화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가별로 나라 대중(관객)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자국 제작영화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각 국가별 자국 제작영화 흥행작 순위를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의 영화들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영화 시장에 개봉하는 모든 영화들은 종영 후 2년 동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VOD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개봉 후 2년이 아니라, 종영 후 2년이 그 기간에 속한다. 넷플릭스가 프랑스에 진출해 있지만 이런 프랑스 영화법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보통 종영 후 3~6개월 정도면 나오는 작품들이 프랑스에서는 2년을 꼭 채운 뒤에야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조사 대상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의 2022년 박스오피스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원만한 확인을 위해 2022년 10월 이전에 극장 개봉한 작품들 중 박스오피스에 오른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일반 관객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의미도 있으며, 국내 및 국외 영화 입수의 현실적 어려움과도 타협하는 방향 때문이었음을 미리 밝힌다.

순	영화제목	리더필름		크레딧																						
				투자사		제작사		투자사 관계자 인명						제작자 인명						직접 관여 인원						
		배급 사	제작 사	제공/ 배급	공동 제공	제작	공동 제작	제작 투자	공동 투자	투자 총괄	투자 기획	투자 책임	제작 투자 총괄	투자 제작 총괄	제작	기획	기획/ 제작	공동 제작	총괄 프로 듀서	프로 듀서	감독	각본	배우			
1	모가디슈	●	●	1		2	3																			
2	싱크홀	●																								1
3	인질	●	●	1		2																				
4	보이스	●	●	1	2	3		4	5	6		7					8									
5	발신제한	●	●	1	2	3		4	5				7	6	9		10	8								
6	량종	●	●																							
7	유체이탈자	●	●																							1
8	기적	●	●	1	2	3	4	5	6	7		8														
9	연애 빠진 로맨스	●	●	1	2	3		4	5				6				8			9	7	10	11	12	13	
10	장르만 로맨스	●	●	1	2	8	9	3	4	5	6	7					10									

3) 2021년 한국영화(일반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경우와 2022년도 오프닝 크레딧을 함께 검토한다면 비교가 더욱 용이할 듯하다. 이후 이 연구가 더욱 정확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한국영화 오프닝 크레딧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 오프닝 크레디트의 의미와 통계적 흐름

세계 영화 역사에 오프닝 크레디트에 사람들을 나열하는 필수적인 방식은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조합이 명시하는 순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프닝 크레디트에는 규칙이 없다. 영화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과 같이 위대한 영화라고 평가 받는 작품을 보면 오프닝 크레디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 케인>의 경우도 영화 제목이 기재된 후 바로 영화가 시작되며, 모든 크레디트는 마지막에 보여준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크레디트를 사용한다면, 오프닝 크레디트는 제작사 로고 다음, 영화의 시작 전에 나오며, 해당 작품 제작의 가장 중요한 멤버를 나열한다. 필수적인 순서 방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오프닝 크레디트 순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제공 회사 (배급사) Production Company presents (distributor)
 제작 회사 (제작사) a Production Company production (producer)
 '****' a Filmmaker film 감독 작품
 영화 제목 Film Title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캐스팅 감독 Casting Director
 음악 감독 Music Composer
 의상 디자이너 Costume Designer
 협력 프로듀서 Associate Producer
 편집 Editors
 프로덕션디자이너 Production Designer
 촬영 감독 Director of Photography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Executive Producer
 프로듀서 Producer
 작가 Writer
 감독 Director

대부분의 경우 영화의 장르가 오프닝 크레디트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즉 영화의 종류에 따라 오프닝 크레디트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릴러물'이나 '공포영화'의 경우가 그러하다.

언제부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영화 제작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산업화되면서 오프닝 크레디트도 달라지는 추세다. 영화가 필름으로 제작되던 시절 제작사는 크레디트가 길어지면 그 비용이 즉시 발생했기에

4)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크레디트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한국영화 크레디트 개선에 관한 연구」, 2018, 22쪽.



오프닝 크레디트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크레디트의 길이도 중요했다. 하지만 디지털로 영사되면서 더 이상 오프닝이나 엔딩 크레디트에 무감각해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한국영화들의 경우 제작사나 투자회사뿐 아니라 ‘인명’이 기재되기 시작하면서 관객들은 5~10초가량 동안 투자자들의 이름을 관람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코로나19 이전 한국영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영화 제작 환경도, 영화 창작자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오프닝 크레디트에 대한 가치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축된 영화 현실에서 오프닝 크레디트를 영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엔딩 크레디트에도 표기되는 내용을 오프닝 크레디트에서 다시 한 번 노출되면서 영화 중심이 창작자가 아닌 투자·제작자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의 일환임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4. 2022년도 국가별 오프닝 크레디트 분석

2022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상위권 영화의 오프닝 크레디트를 검토한다.⁵⁾ 이때 선정된 나라는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5개국이다. 연구 조사에 있어 위의 분석 대상 영화의 오프닝 크레디트는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고, 리더필름으로 시작되는 도입부부터 오프닝 시퀀스 진입 시까지 노출(출력)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단, 국외영화의 경우 수입사의 리더필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4.1 한국영화

한국영화의 경우 일반영화와 독립영화는 서로 다른 제작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대자본에 기반한 시스템에 의해 제작되고 있지만, 독립영화의 경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화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디트는 일반영화와 독립영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 일반영화

아래는 한국 일반영화의 2022년도 박스오피스 상위권 작품의 목록이다.

- ① 범죄도시 2
- ② 한산: 용의 출현
- ③ 공조2: 인터내셔널

5) 이번 연구의 일정은 2개월가량의 짧은 일정으로 2022년도 1년간의 박스 오피스를 선정해 조사하는 데 그쳤다. 오프닝 크레디트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검토 과정을 통해 그 변화 추이와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헌트
- ⑤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⑥ 비상선언
- ⑦ 육사오(6/45)
- ⑧ 헤어질 결심
- ⑨ 외계+인 1부
- ⑩ 브로커

순	영화 구분	영화제목	리더필름		크레딧																							
					투자사			제작사			투자사 관계자 인명				제작자 인명				직접 관여 인원									
			배급사	제작사	제공/배급	공동제공	투자지원	제작	공동제작	제작지원	제작투자	공동투자	투자총괄	투자책임	투자기획	제작총괄	기획	제작	공동제작	총괄프로듀서	프로듀서	공동프로듀서	감독	스태프	배우			
1	한국 일반 영화	범죄도시2	●	●																					1			
2		한산	●	●																								
3		공조2: 인터내셔날	●	●	1	2		3	4		5	6	7					8	9		10	11	13			12		
4		헌트	●	●	1	3		2			4		5	6		7		8										
5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																								
6		비상선언	●	●	1	2		3	4																5			
7		육사오(6/45)	●	●	1	2		3	4		5		6					7										
8		헤어질 결심	●	●	1	2																						
9		외계+인 1부	●	●	1			2																3				
10		브로커	●	●	1	2																						

▲ 오프닝 크레딧이 제시된 순서를 작품별로 숫자로 표시하였고 10편의 작품을 종합한 표로 작성하였다.

❖ 한국 일반영화 분석

한국 일반영화의 경우 리더필름에서부터 나타나는 배급사와 제작사의 위계를 알 수 있다. 먼저 리더필름이란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수초 분량의 영상물을 말하며, 영화 투자사와 제작사 등을 알게 해주는 명함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영화 조사대상 10편 모두 리더필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 한편도 예외 없이 배급사가 선행하고 제작사가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중 오프닝 크레딧이 등재된 영화는 8편으로 집계 되었다. 압도적인 크레딧의 등재 1순위는 제공/배급이며, <범죄도시2>를 제외한 7편 모두가 제공/배급사가 크레딧의 1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범죄도시2>의 경우 본 영화의 시작 장면과 함께 배우들의 인명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른 영화들과 다른 점이다. 또한 단 한편의 영화에도 제작사가 배급사에 우선하여 등재된 경우가 없는 점도 특이점이다. 다음과 같이 오프닝 크레딧의 등재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 투자배급사 관계자 ‘인명의 과도한’ 사용 : 4편

다음으로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영화 특히 일반영화의 경우 투자배급사 및 공동제공사 관련 인명의 과도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외영화와 비교되는 한국영화 오프닝 크레디트만의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투자배급사 및 공동제공사 관련 인명을 과도하게 등재하고 있는 것이다. 4편의 영화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영화들의 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공조2: 인터내셔널〉

제공/배급사인 CJ ENM의 대표이사 인명을 ‘제작투자’라는 직책으로 등재하고 있다. CJ ENM은 제공/배급사이면서 공동제작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제작투자라는 명칭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J ENM은 ‘제작투자총괄’이라는 직책으로 자사의 비상근 등기임원의 인명을 등재하고 있다. ‘제작투자총괄’이라는 직책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 굳이 대표이사 말고 추가로 인명을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의문이 든다. 또한 무려 17개에 이르는 공동제공사들의 회사 이름을 등재하고 ‘공동투자’라는 직책으로 그 대표이사 18명(공동대표 2인)의 인명이 모두 등재되고 있어 문제적이다.

구분	표기 내용	비고
리더필름	CJ ENM	배급사
리더필름	JK FILM	제작사
크레디트	제공/배급 CJ ENM	
크레디트	공동제공 한국카본 화인파트너스 엠캐피탈 큐개피탈파트너스 디지털캐피탈 신한캐피탈 키다리스튜디오 시더스인베스트먼트 대구문화방송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아스트라자산운용 루믹스미디어 넥스트월드 워터홀컴퍼니 토브자산운용 창조투자자문 은하수필름	17개사
크레디트	제작 JK FILM 공동제작 CJ ENM 영화사 창진	
크레디트	제작투자 강호성 제작투자총괄 시 연재	CJ ENM 대표이사 CJ ENM 영화국내사업부장, 미등기상근임원
크레디트	공동투자 조문수 윤태우 안정식 황희연 김병희 정운진 김영훈 이상은 이동민 김동하 이수창 정성호 이용훈 신우성 주 현 최정열 이현철 권성휘	공동제공사 관계자



구분	표기 내용	비고
크레딧	제 작 윤제균 길영민 공동제작 이선영 이석훈	길영민(JK FILM 대표이사) 이선영(CJ ENM MD본부장, 미등기상근임원)
크레딧	프로듀서 주승환 공동프로듀서 홍아름	
크레딧	현 빈 유해진	배우(화면과 함께 등장)
크레딧	입윤아 다니엘 헤니 진선규	
크레딧	감독 이석훈	감독(화면과 함께 등장)

▲ 투자 배급사 관계자 인명이 사용된 영화 오프닝 크레딧 예시

<힌트>

제공/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의 대표이사 인명을 '제작투자'라는 직책으로 등재하고 있다. 플러스엠 역시 '투자총괄'과 '투자기획'이라는 직책으로 자사 임직원의 이름을 등재하고 있다. 특히 투자기획자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플러스엠에서 정확히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18개에 이르는 공동제공사의 대표자명을 '공동투자'라는 직책으로 기재하고 있다.

<육사오>(6/45)

위의 두 영화와 달리 제공/배급사의 임직원 이름은 노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동제공사 대표들의 인명을 나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명을 등재하고, 심지어는 그 기업의 임원 이름을 추가로 등재하기도 하며, 많게는 20여개 사에 이르는 공동제공사의 대표이사명을 공동투자(자)라는 명목으로 전원 등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창작의 주체인 감독을 비롯한 주요한 스태프들의 인명은 뒤로 밀리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비상선언>

<비상선언>의 경우 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제공/배급사인 쇼박스의 회사이름을 등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의 경우 공동제공사가 많기에 공동제작사의 명을 등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순	영화제목	투자사 구분	제공/배급 및 공동제공사명	투자자 및 공동투자자	비고
1	공조2: 인터내셔널	제공/배급	CJ ENM	제작투자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제작투자총괄 시연재	CJ ENM 영화 국내 사업부장, 미등기 상근임원
		공동 제공	한국카본 화인파트너스	조문수	대표
				윤태우	대표



			엠캐피탈	안정식	대표
			큐캐피탈파트너스	황희연	대표
			디지비캐피탈	김병희	대표
			신한캐피탈	정운진	대표
			키다리스튜디오	김영훈	대표
			시더스인베스트먼트	이상은	대표
			대구문화방송	이동민	대표
			트윈플러스파트너스	김동하	대표
			아스트라자산운용	이수창, 정성호	공동대표
			루믹스미디어	이용훈	대표
			넥스트월드	신우성	대표
			위터홀컴퍼니	주 현	대표
			토브자산운용	최정열	대표
			창조투자자문	이현철	대표
			은하수필름	권성휘	대표
2	헌트	제공/ 배급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작투자 홍정인	플러스엠 대표
				투자총괄 이정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본부장
				투자기획 김유진	플러스엠
		공동 제공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주)	전제모	대표
			산은캐피탈(주)	김건열	대표
			바이포엠스튜디오	유귀선	대표
			메이저나인	박성태, 황정문	공동대표
			미시간벤처캐피탈(주)	조일형	대표
			솔레어파트너스(유)	최평호	대표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김학운	대표
			(주)이수창업투자	이희섭	대표
			(주)대교인베스트먼트	진성태	대표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김명배, 한석우	공동대표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백승재	대표
			케이제이엔투자파트너스(유)	박재찬	대표
			KC벤처스(주)	김승현	대표
			대구문화방송(주)	이동민	대표
			일신창업투자(주)	최지현	대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장세정	대표
			주식회사 컴투스	송재준, 이주환	공동대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정운진	대표			



3	육사오(6/45)	제공/ 배급	씨나몬(주)홈초이스	제작투자 김태울	대표이사
			싸이더스	제작투자 홍성호	대표이사
		공동 제공	미시간벤처캐피탈	조일형	대표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
			케이앤투자파트너스	김철우	대표
			솔레어파트너스(유)	최평호	대표
			로간벤처스(유)	박정환	대표
			이수창업투자	이희섭	대표
			대성창업투자	김영훈, 박근진	공동대표

▲투자/배급사 오프닝 크레딧 인명 기재 현황

— 오프닝 크레딧의 ‘간소화’ : 4편

〈범죄도시 2〉의 경우 리더필름 후 영화를 바로 시작하면서 영화 화면과 동시에 주요 배우의 이름을 등재하고 있다.

〈헤어질 결심〉의 경우 제공/배급사와 공동제공사만 명기한 채 바로 영화를 시작한다.

〈브로커〉의 경우도 제공/배급사와 공동제공사만 명기한 채 바로 영화를 시작한다.

〈외계+인〉 1부의 경우 제공/배급사와 제작사명을 명기한 후 바로 영화를 시작하여 투자관계사 및 주요제작 스태프의 인명을 생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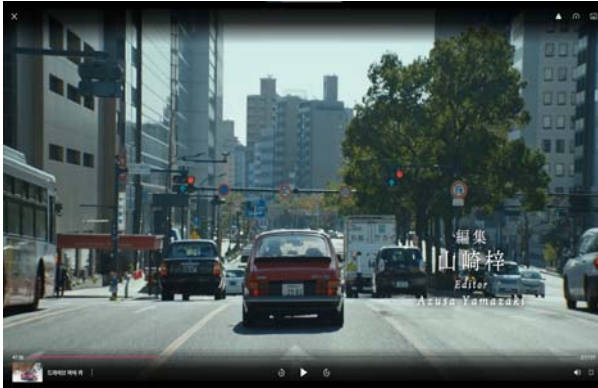
위 영화들의 경우 제작자 혹은 감독(마동석, 박찬욱, 고레에다 히로카즈, 최동훈)의 네임 밸류로 인해 크레딧 협의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그들만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기에 굳이 투자자의 인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장르영화의 특징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 영화들의 경우를 한국 영화 전반에 나타나는 추세적인 경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오프닝 크레딧 ‘생략’ : 2편

조사 대상 작품 중 〈한산〉,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의 2편의 영화는 리더필름 이후에 오프닝 크레딧을 생략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한국영화에서도 오프닝 크레딧 생략을 시도한다고 보기보다는 장르적 경향으로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외적 현상 : 〈드라이브 마이카〉, 〈군함도〉

〈드라이브 마이카〉는 박스 오피스 대상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오프닝 크레딧에서 언급할 만한 작품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드라이브 마이 카>는 영화가 시작되고 40여분이 지난 후 창작자 중심의 크레디트를 볼 수 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경우 오프닝 크레딧에서는 영화의 원작품만 간략하게 표기되고 바로 영화가 시작된다. 이후 영화가 시작되고 40여분이 지난 후 창작자들의 이름이 표기되는 방식으로 크레딧이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드라이브 마이 카>가 보여주는 크레딧은 최근 반영되는 투자자 중심의 크레딧에서 벗어나 있는 동시에 영화의 내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크레딧 구성 또한 영화 창작의 일부임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 의미 있어 보인다. 더불어 이 크레딧은 앞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크레딧을 '관람'하게 만들며, 창작자들의 노고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방식 중 하나이다.

창작의 일부로 녹아들고 있는 크레딧의 경우는 <드라이브 마이 카> 뿐만 아니라 <타르> <군함도> 등의 몇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소위 말하는 흥행 작품은 아니다.

❖ 한국 일반영화 정리

한국영화의 경우를 정리하자면 총 10편의 영화 중 4편은 기존의 관행대로 투자자 중심의 인명 노출을 하고 있고, 4편은 제공/배급사와 공동제공사 및 제작사명만 명기한 채 본 영화로 진입하고 있으나, 유명 감독의 의견이 반영되어 투자자 인명 노출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2편은 오프닝 크레딧을 생략한 채 리더필름 이후 바로 영화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시점에서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에 있어서 어떤 지배적인 형태는 없는 것으로도 보이나,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영화의 경우 과도한 인명이 기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독립영화

아래는 한국 독립영화의 2022년도 박스오피스 상위권 작품의 목록이다.

- ① 대무가
- ②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 ③ 나의 촛불
- ④ 봄날
- ⑤ 극장판 월벤저스: 수상한 캠핑 대소동



- ⑥ 어부바
- ⑦ 룸 셰어링
- ⑧ 오마주
- ⑨ 불도저에 탄 소녀
- ⑩ 소설가의 영화

순	영화 구분	영화제목	리더 필름		크레딧																					
					투자사			제작사		투자사 관계자 인명				제작자 인명					직접 관여 인원							
			배급사	제작사	제공/배급	공동제공	투자지원	제작	공동제작	제작지원	제작투자	제작투자총괄	공동투자	투자총괄	투자책임	투자기획	제작총괄	기획	제작	공동제작	총괄프로듀서	프로듀서	공동프로듀서	감독	스태프	배우
1		대무가	●	●	1	2	3	4	5																	
2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	●	1			2																		
3		나의 촛불	-	-																						
4	한국	봄날	●	●	1	2		3			4	5	6	7												
5	독립 예술	극장판 윌벤저스 : 수상한 캠핑 대소동	-	-	1			2								3							4			
6	영화	어부바	●	●	1			2												4	5		6	3		
7		룸 셰어링	●	●	1			2	7		3			4	5		6									
8		오마주	●	●	2		1	3									4									5
9		불도저에 탄 소녀	●	●	1	2	3			4	5		6					7								
10		소설가의 영화	●	●				3															2		1	

▲ 오프닝 크레딧이 제시된 순서를 작품별로 숫자로 표시하였고 10편의 작품을 종합한 표로 작성하였다.

독립영화의 특징

독립영화의 경우 투자, 제작지원처의 명이 과도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독립영화의 특성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지원처 표기(3편)

- 〈대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부 한국벤처투자(주)
- 〈오마주〉 2020년 경기영상위원회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자
- 〈불도저에 탄 소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부 한국벤처투자(주)

제작지원자 표기(2편)

- 〈오마주〉
-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자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현장 방역지원작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작
 2020년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2020년 서울배경로케이션 제작지원작
 2020년 충남영상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

〈불도저에 탄 소녀〉

2014 ACF인큐베이팅펀드 지원작
 2019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
 2020 인천영상위원회 저예산영화 제작지원작
 2020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투자지원작

❖ 한국 독립영화 분석 내용

한국 일반 상업영화와 마찬가지로 오프닝 크레디트를 제시하는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하지만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일반영화에 비해 작품들마다 각각의 특정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향을 보이므로, 개별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을 덧붙여 보았다.

— 제공/배급사명, 공동제공사, 제작사, 배급투자사 관계자, 공동제공사 관계자의 인명을 등재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는 유형 : 3편

〈봄날〉

제공/배급사명, 공동제공사명, 제작사명, 배급사 관계자 인명, 공동제공사 관계자 인명을 등재하고 시작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룸 셰어링〉

제공/배급사명, 공동제공사명, 공동배급사명, 기획/제작사명, 제공/배급사 및 공동제공사 관계자의 인명을 기재한 뒤 시작하는 영화 〈봄날〉과 유사하고 전형적인 방식을 따른다.

〈불도저에 탄 소녀〉

저예산 영화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크레디트의 우선 순위는 제공/배급사명과 공동제공사명이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투자지원처명과 제작지원처명이 나오고, 제공/배급사 및 공동제공사의 관계자 인명을 노출한 후 제작사명으로 오프닝 크레디트를 마감한다.

— 제공/배급, 공동제공, 제작사만 표기하여 오프닝 크레디트 간소화 : 3편

〈대무가〉



제공/배급사명, 공동제공사명, 투자지원처명, 제작사명만 표기하고 이후 크레디트는 생략한 채 영화를 시작한다.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배급사명과 제작사명만을 기재하고 바로 영화 진입

〈극장판 월벤저스: 수상한 캠핑 대소동〉

이 작품의 경우 앞선 작품들과 다르게 리더필름이 없는 작품이다. 대교그룹에서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별도의 리더필름을 제작하지 않은 듯 보인다. 배급사명, 투자사명, 제작사명, 기획자 인명, 감독 인명으로 크레디트를 간소화 하고 첫 장면으로 진입한다.

— 오프닝 크레디트 생략 : 1편

〈나의 촛불〉

오프닝크레디트는 물론 리더필름조차도 생략된채 바로 오프닝시퀀스로 진입. 배급사는 트윈플러스파트너스라는 곳인데 기자 출신인 제작자 김동하 대표가 운영하는 제작사이다. 〈다음 소회〉의 제작사이기도 하며, 한국 일반영화에서 분석했던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커〉의 공동제공한 투자사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특성과 저예산 영화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오프닝 크레디트를 생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투자배급사 관계자 인명을 배제하고 제작자나 스태프 및 배우의 이름을 먼저 등재하여 일반영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유형 : 3편

〈어부바〉

투자배급사나 공동제공사 관계자의 인명을 등재하지 않는다.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명을 기재한 뒤, 조명, 촬영, 동시녹음, 편집 등의 현장 스태프의 인명을 먼저 기재한 뒤 총괄프로듀서, 프로듀서, 각본/감독 순으로 실제 창작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등재하고 오프닝 크레디트를 마무리 하는 구성을 보여준다.

〈오마주〉

저예산 독립영화의 특성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관계로, 다수의 지원처명이 먼저 등장한다. 바로 그 뒤로 제공/제작사명, 배급사명이 나오고 관계자명은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제작자(감독)의 인명을 기재한 뒤, 주요 출연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영화를 시작한다.

〈소설가의 영화〉

오프닝 크레디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프닝 크레디트를 제작한 작품이다. 배급/투자사 및 제작사명조차 기재하지 않고 배우 이름으로 크레디트를 시작하고, 감독에 이어



제작사를 끝으로 오프닝 크레디트를 마무리 한다. 이는 홍상수 감독의 작업 방식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 한국 독립영화 의의

위의 유형별 정리의 4항과 같이 투자배급사나 공동투자자의 인명을 기재하지 않고, 영화의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원(제작자, 감독, 현장 스태프 및 배우)의 이름을 최우선적으로 등재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4.2 미국영화

순	영화 구분	영화제목	리더필름		크레디트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제작인원 A Production (제작자)
					Presents (제공/배급)	In Association With (공동제공)	
1	미국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	●	.	.	.
2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	●	.	.	.
3		토르: 러브 앤 썬더	-	-	.	.	.
4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	.	.	.
5		썩2계더	●	●	1	.	2
6		언차티드	●	●	1	.	.
7		모비우스	●	-	1	2	.
8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	.	.	.
9		배드 가이즈	●	●	.	.	.
10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	●	.	.	.

▲ 오프닝 크레디트가 제시된 순서를 작품별로 숫자로 표시하였고 10편의 작품을 종합한 표로 작성하였다.

❖ 미국영화 오프닝 크레디트 특징

미국영화의 경우도 리더필름은 통상적으로 배급/제공사가 우선하고 제작사가 이어서 등장하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통상적인 유형을 벗어나는 작품도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밝힌다.

먼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제공/배급사인 ‘월트디즈니’의 로고가 등장하지 않는다. 제작사인 ‘MARVEL STUDIOS’의 로고만 보여주고 바로 본 영화의 도입부로 진입하는 형식이다. ‘마블 스튜디오’는 ‘월트디즈니 스튜디오’의 자회사이기도 한데, 이러한 관계 덕분에 굳이 제공/배급사의 로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리더필름의 예시

다음으로 <모비우스>의 경우 배급사인 '컬럼비아'와 공동제공사인 '마블'의 로고만 볼 수 있고, 제작사인 '아비 아라드 프로덕션'과 '매튜 톨마치 프로덕션'의 로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경우는 별도의 리더필름을 볼 수 없는 작품이다.

위 3편의 영화를 제외하면, 배급/제공사와 제작사의 순으로 리더필름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영화와도 동일한 순서이다.

❖ 미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분석

— 먼저 눈에 띄는 경향은 박스오피스 10편의 조사대상 영화중 오프닝 크레딧 자체를 생략한 작품이 무려 7편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1년간 개봉작 중 10편에 한정된 사례라 일반화를 하기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영화에서는 오프닝 크레딧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처럼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오프닝 크레딧을 생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 오프닝 크레딧을 제시한 3편의 작품을 보자.

영화 <모비우스>의 경우 제공(presents)사인 '컬럼비아 픽처스'와 공동(In Association With) 제공사인 '마블'의 자막만으로 크레딧을 마무리한다. 다른 하나의 작품 <언차티드>의 경우는 제공사인 '컬럼비아 픽처스'를 끝으로 더 이상의 크레딧은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썩2계터>는 제공사 '유니버설 픽처스'와 이 작품의 제작자인 '크리스 멜레단드리'를 소개하며 오프닝 크레딧을 마친다. 이 세 편의 영화는 오프닝 크레딧이 간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 앞선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영화의 오프닝 방식을 정리하자면, 먼저 미국영화의 상당수의 작품들에서 오프닝 크레딧이 생략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프닝 크레딧으로 제시한 작품들을 보면 제공사와 공동제공사, 제작자의 인명 정도만 짧게 제시하는 정도로 오프닝 크레딧이 아주 간소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와는 다르게 투자배급사나 공동제공사의 대표들과 다수의 임직원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미국영화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4.3 프랑스영화

영화 제목		9명의 번역가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	에펠	레벤 느망	다 잘된 거야	베네 데타	티탄	디셉션	데쓰 캘린더	아네트	
리더 필름	배급사	-	●	●	●	●	●	●	●	●	-	
	제작사	●	●	-	●	-	●	●	●	●	●	
	방송사	-	-	-	-	●	-	●	-	-	-	
크레디트	제작사	1	1	-	1	1	-	1	1	1	1	
	투자 및 지원	공동제작 (une coproduction)	2	2	2	2	2	2	2	-	2	2
		방송사 (avec la participation de)	3	3	3	3	3	3	3	2	4	3
		소피카 (en association avec)	4	4	6	5	4	4	-	-	3	5
		기타 투자 (en association avec)	-	-	5	-	-	-	-	-	6	-
		지원단체 (avec le soutien de)	-	5	4	4	5	5	-	3	5	4
	인명	제작자 (presente)	-	-	1	-	-	1	-	-	-	-
		출연	5	6	-	-	-	6	-	-	-	-
		음악 (musique originale)	-	-	-	-	-	10	-	-	-	-
		협력 프로듀서 (producteur associes)	-	-	-	-	-	7	-	-	-	-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producteur exectives)	-	-	-	-	-	8	-	-	-	-
		공동 프로듀서 (coproduitpar)	-	-	-	-	-	9	-	-	8	6
		프로듀서 (produitpar)	6	7	-	-	-	13	-	-	7	7
		원작	-	-	-	-	-	11	-	4	-	-
		각본 (scenario de)	-	8	-	-	-	12	-	-	-	-
감독 (un film de)	7	9	-	-	6	14	-	-	9	-		

▲ 오프닝 크레디트가 제시된 순서를 작품별로 숫자로 표시하였고 10편의 작품을 종합한 표로 작성하였다.

❖ 프랑스영화 산업의 특성

프랑스영화의 크레디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영화 산업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영화 산업은 미국영화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화의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영화를 일반산업과 차별화된 예외적인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가 문화산업으로서 갖는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영화 산업 주체들을 관리하고 지원금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국립영화/영상센터인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가 1946년 설립되어 영화 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방송사 매출액 가운데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영화제작에 투자해야한다는 법이 1985년부터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영화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1985년 법에 의해 설립된 '소피카(Sociétés pour le financement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라고 하는 투자 펀드가 존재하며, 이는 영상 및 영화 분야에만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의 영화 제작 지원 역시 활발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영화 제작 지원 기준은 지역 내 촬영과 지역 인력 및 기술 사용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정 기술의 사용을 권하기도 하고 지원금에 비례해 영화 예산의 일정 정도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인 프랑스영화의 투자비 구성을 보면 제작사가 전체 투자비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텔레비전 채널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작사와 텔레비전 채널의 투자에 이어 투자 조합인 소피카(Sofica)와 CNC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공지원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 때문에 프랑스 영화 오프닝 크레디트의 대략적 순서는 각 영화별로 모두 유사하며,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작사(presente)
공동제작사(une coproduction)
방송사(avec la participation de)
소피카(en association avec)
지원단체(avec le soutien de)
제작 참여인원

단 오프닝 크레디트에 있어서, '영화 제작'참여 인명을 쓸 때는 작품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제작자, 연출부, 스태프 및 배우 등 여러 직군들의 참여 인명을 등재한 경우 : 1편
〈베네데타〉의 경우 제작자, 배우, 프로듀서, 음악, 원작, 각본, 감독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한 직군의 인명을 등재
- 프로듀서, 감독 및 배우 등으로 핵심적인 인명만 제시하는 경우 : 4편
〈9명의 번역가〉 배우, 프로듀서, 감독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 배우, 프로듀서, 각본, 감독
〈데쓰 캘린더〉 프로듀서, 공동프로듀서, 감독
〈아네트〉 공동프로듀서, 프로듀서



— 영화별로 핵심적으로 기여한 단 1명만 등재한 경우 : 3편

- 〈에펠〉 제작자
- 〈다 잘된 거야〉 감독
- 〈디셉션〉 원작

— 참여인원 표기를 생략한 경우 : 2편

- 〈레벤스망〉
- 〈티탄〉

다양한 직군의 참여인원을 등장시킨 영화는 〈베네데타〉 1편으로 프랑스 영화도 역시 오프닝 크레디트에 인명에 대한 표기는 간소화 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사의 대표나 임직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편도 없는 것이 한국 영화의 오프닝 크레디트와 차이점을 갖는다.

4.4 일본영화

영화제목		드라이브 마이카	우연과 상상	로망스돌	프로 메어	도쿄 리벤저스	실종	오늘부터 우리는!!	약속의 네버랜드	4월은 너의 거짓말	달빛 그림자
리더 필름	배급사	●	●	●	●	●	●	●	●	-	●
	제작사	●	●	●	●	●	●	●	●	-	●
크레 디트	단체명	제작위원회	1	1							
		제공	2								
		제작사	3			7					
	인명	원작(자)	4			1					
		캐릭터디자인				2					
		각본				3					
		감독				4					
		배경감독				5					
		음악				6					

▲ 오프닝 크레디트가 제시된 순서를 작품별로 숫자로 표시하였고 10편의 작품을 종합한 표로 작성하였다.

❏ 일본영화의 제작 경향

일본 영화의 경우, 영화제작사를 ‘제작위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작위원회(製作委員會)는 영화,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본의 출자방식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의 경우 흥행이 기대보다 좋지 않을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작사가 모두 부담할 경우



도산, 인수합병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손실 혹은 이익이 생기면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제작위원회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제작위원회의 구성원은 영화사, 방송국, 광고대행사, 출판사 등 영상 산업 메이저군 회사의 집합체이다. 본 조사에서 살펴본 전체 영화의 10편 중 두 편에서 '제작위원회'라는 단어를 크레딧에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일본영화 오프닝 크레딧 분석

2022년 개봉한 일본영화 중 영진위 박스오피스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일본영화 10편 중 7편의 경우가 오프닝 크레딧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원작자나 감독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한 인원들의 이름만을 제시할 뿐, 한국처럼 투자 관련사 대표나 임직원의 이름은 대체로 찾아 볼 수 없었기에 따로 분석할 데이터가 없었다. 하지만 이는 2022년 박스오피스 영화 몇 편에 기초한 조사였음을 밝힌다.

더 많은 일본영화를 분석한다면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음을 밝힌다.

4.5 중국영화

❖ 중국영화 제작사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딧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영화 제작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제작사'라는 개념은 단순히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투자까지 가능한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은 영화 흥행수익 배분의 구조가 한국과는 다르다. 제작사에 분배하는 '제작 지분'이라는 수익 지분이 없으며, 투자비율이 곧 수익 지분과 같다.

최근에는 중국도 감독, 작가 혹은 배우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제작사에서 가져가는 수익 지분이 없기 때문에 제작 대행의 인건비와 제작비 비용 정산 이외에 제작사가 투자를 통해 지분을 획득하는 구조다. 따라서 중국의 영화 제작사라고 하면 제작 혹은 배급 등 영화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한 기능을 수행하며 투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스튜디오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 보인다.



중국 영화 오프닝 크레디트의 주요 특성

영화제목	청춘 적니	빅사크4: 바다공룡 대모험	특수 요원 빼꼼	원 세컨드	애니멀 체인지	열대 왕사	긴급 구원 더레스큐	더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도진 강호	수호 무적
리더필름	배급사	.	.	●	.	●
	제작사	●	.	●	●	●	●	●	●	.
크레디트	Present(출품)	1	.	1	.	.	1	.	.	1
	Presented by(출품)	1	.	1	.	.
	Presented by(출품인)	2
	Presenters(출품인)	2
	Publisher(출품인)	4	.
	Executive Producer(출품인)	.	.	.	2	.	3	3	.	.
	Executive Producer(집행제편인)	.	.	2	6	.
	Executive Producer(감제)	8
	Co-Presented by(연합출품)	2	2	.
	In Association With(연합출품)	2	.	.	.
	Union Publisher(연합출품인)	5	.
	Co-Executive Producer(연합출품인)	4	.	.
	Co-Executive Producer(감제)	3
	Production Company(승제)	.	.	2
	Production Company(출품공사)	1	.
	Production Company(제작공사)	3	.
	Producer(제편인)	.	.	1	1	6	10	24	.	4
	Film Producer(제편인)
	Administrative Producers	6	.	.
	Associate Executive Producer	4	.	.	.
	Associate Producers	4
	Chief Producer	.	.	.	3	5
	Co-Producers	7	.	5	.	.
	General Producer	7	.	.	.
	General Line Producers	9	.	.	.
	Line Producer	.	.	.	4	.	.	8	.	.
	Production Coordinator	11
	Production Executive(총책화)	3	.	7	.	.
	Production Manager	.	.	.	10	.	.	11	.	.
	Production Supervisor	.	.	7
	Chief Director	23
	Director	24
	Directed by	25	.	15
	Assistant Director	12	.	12
	Screenplay by	.	.	4	.	.	.	23	.	5
	Writers	.	.	.	6
	촬영	Director of Photography	11	15	.	6



영화제목		청춘 적니	빅사크4: 바다공룡 대모험	특수 요원 빼꼼	원 세컨드	애니멀 체인지	열대 왕사	긴급 구원 더레스큐	더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도진 강호	수호 무적
조명	Gaffer	-	-	-	-	-	-	-	16	-	-
미술	Production Designer	-	-	-	-	-	-	12	-	-	-
	Art Director	-	-	5	-	7	-	-	13	-	-
	Director of Art Designer	-	-	-	-	-	-	-	-	-	7
	Image Designer	-	-	-	-	-	-	-	14	-	-
	Scean Modelling Supervisors	-	-	-	-	13	-	-	-	-	-
의상	Costume Designer	-	-	-	-	-	-	-	-	8	
분장	Make-up Artist	-	-	-	-	-	-	-	-	9	
스토리 보드	Story Consultant	-	-	3	-	-	-	-	-	-	-
	Storyboard Artists	-	-	-	-	9	-	-	-	-	-
	Storyboard Directors	-	-	-	-	8	-	-	-	-	-
특수효 과	3D Storyboard Directors	-	-	-	-	12	-	-	-	-	-
	Special Effects Supervisors	-	-	-	-	15	-	-	-	-	-
액션	Visual Effects Supervisors	-	-	-	-	-	-	20	-	-	-
	Martial Arts Director(무술감독)	-	-	-	-	-	-	-	-	-	10
	Car Stunt Coordinator	-	-	-	-	-	-	-	18	-	-
편집	Action Choreographer(액션 안무가)	-	-	-	-	-	-	-	17	-	-
	Edited by	-	-	-	-	-	-	-	19	-	-
캐스팅	Editing Supervisor	-	-	14	-	20	-	-	-	-	-
	Actor Coordination	-	-	-	-	-	-	-	-	-	13
기획	Planning	-	-	-	-	5	-	-	-	-	
음악	Music by	-	-	12	-	21	-	21	-	-	-
	Music Directors	-	-	-	-	22	-	-	-	-	-
사운드	Sound Designer	-	-	-	-	-	-	-	22	-	-
	Sound Supervisor	-	-	11	-	-	-	-	-	-	-
	Dubbling Director	-	-	13	-	19	-	-	-	-	-
애니 메이션	VFX	-	-	10	-	-	-	-	-	-	-
	Animation Director	-	-	6	-	-	-	-	-	-	-
	Animation Supervisor	-	-	8	-	11	-	-	-	-	-
	Character Modelling Supervisors	-	-	-	-	14	-	-	-	-	-
	Compositing Supervisors	-	-	-	-	16	-	-	-	-	-
	Pipeline Technical Director	-	-	9	-	-	-	-	-	-	-
	Rigging Supervisor	-	-	-	-	17	-	-	-	-	-
Technical Director	-	-	-	-	18	-	-	-	-	-	
자문	Advisory Unit	-	-	-	-	-	5	-	-	-	
지원	General Consultants	-	-	-	-	-	-	6	-	-	-
	General Distributors(총발행인)	-	-	-	-	-	-	8	-	-	-
출연	Starring	-	-	-	-	-	9	-	10	-	14
	Co-Starring	-	-	-	-	-	11	-	-	-	-
	Guest Starring	-	-	-	-	-	10	-	-	-	-
	Special Appearance	-	-	-	-	-	-	9	-	-	-



① 오프닝 크레딧 도입부에 등장하는 ‘다수 제작사’(=투자배급사) 관련 크레딧

중국에서 영화제작사(동시에 메인투자자이기도 한)는 출품(出品, present, 제공), 공동제작사(동시에 공동투자사)는 연합출품(聯合出品)이라는 크레딧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출품사의 관계자(주로 대표)는 출품인(出品人), 결합출품사의 관계자는 연합출품인(聯合出品人)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국영화 생태계에서 제작사는 지배적인 지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가 반영된 결과로 한국영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에서도 제작사(출품사) 및 공동제작사(연합출품사)의 관계자(주로 그 회사의 대표자)의 인명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아래 데이터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긴급구원 더레스큐〉

<p style="text-align: center;">Present(出品)</p> <p style="text-align: center;">Emperor Film Production Company Limited China Communications Press Co.,Ltd. China Modern Film And Television Development Company Limited Tencent Pictures Culture Media Company Limited Zhejiang Bona Film & Television Production Company Limited Beijing Autonavi YunMap Technology Co.,Ltd. TianJin MaoYan WeYing Culture Media Co.,Ltd.</p>	출품(제작)
<p style="text-align: center;">In Association With(聯合出品)</p> <p style="text-align: center;">Xizang Guosheng Park Development Investment Co.,Ltd. Horgos United Entertainment Partners Culture & Media Co.,Ltd. Migu Co.,Ltd. Dasheng Times Cultural Investment Co.,Ltd. Mihot Group Co.,Ltd. Huawen Picture Co.,Ltd. Xiamen Ransup Film Co.,Ltd. Horgos Leader Culture Media Co.,Ltd. Mokexing film Beijing Co.,Ltd. China Modern Film and Television Development (HK) Company Limited Yongkang Xiaoyao Films Company Limited</p>	연합출품(공동제작)
<p style="text-align: center;">EXECUTIVE PRODUCERS(出品人)</p> <p style="text-align: center;">ALBERT YEUNG ZHU JI ALIN LI YU EDWARD CHENG YU DONG LIU ZHEN FEI PETER ZHENG</p>	출품사 인명



<p>Associate EXECUTIVE PRODUCERS(联合出品人) ZHAO YUN PENG WILSON JIANG LIU XIN TESEN ZHOU LI JIE LI FEI ZHAN ZHAO HUI KE WEI ZHAO REN PENG WEN QING</p>	<p>연합출품사 인명</p>
--	-----------------

② 오프닝 크레딧 '등재 순서 기준'이나 '일관성의 부재'

선정한 영화들의 투자배급사 관계자 및 메인 스태프를 등재 순으로 나열해 보았다. (10개체 이상 등재한 영화)

<특수요원 배품>

직군	직무표기	비고
제작	Producer	.
제작	Executive Producer	.
스토리보드	Story Consultant	.
각본	Screenplay by	.
미술	Art Director	.
애니메이션	Animation Director	.
제작	Production Supervisor	.
애니메이션	Animation Supervisor	.
애니메이션	Pipeline Technical Director	.
VFX	VFX Director	.
사운드	Sound Supervisor	.
음악	Music by	.
사운드	Dubbling Director	.
편집	Editing Supervisor	.

중국영화 중 몇 편의 영화만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딧 목록에서 스태프 크레딧 표기의 순서와 방법이 동일한 영화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영화에서의 기여도 중요도 순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파악할 기준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더불어 제작 관련 크레딧의 경우, 전체 크레딧 내에 일관되게 집약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거나 작품마다 명기법 또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제작직군 직무표기의 혼잡함

제작직군 직무표기를 작품과 상관없이 나열해 보았다.

出品(출품) : 제공사

出品公司(출품공사)

联合出品(연합출품)

制作公司(제작공사) : 제작사

承制(승제) : 계승하여 만들

出品人(출품인)

联合出品人(연합출품인)

制片人(제편인) : 프로듀서

总制片人(총제편인)

联合制片人(연합제편인)

执行制片人(집행제편인)

監製(감제)⁶⁾

执行監製(집행감제)

行政監製(행정감제)

联合監製(연합감제)

策划(책획)⁷⁾

总策划(총책획)

制作总监(제작총감)

중국 오프닝 크레디트는 전체적으로 제작직군의 직무표기에 통일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작관련 직무표기가 다양해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이 표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없다. 또한 유사한 직무에 여러 표현들이 많아 하나의 표현(직군)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크레디트의 중국어 표기와 영어 표기의 '혼선'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디트는 대부분 중국어와 영어를 병기하고 있다. 이때 제작 관련 직군의 경우, 통일해서 사용하지 않고 혼선을 빚고 있음을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다.

6) 감제의 뜻은 감독하여 만든다는 뜻이다.

7) 우리말로 일을 꾸미거나 꾀하는 것. 또는, '획책'이란 단어와 유사한 뜻.



중국어 표기	영어 표기	해당 영화
出品人(출품인)	Executive Producer	긴급구원 더레스큐, 더컨테이션:바이러스의습격
	Presented by	수호무적
	Presenters	열대왕사
	Publisher	도진강호
联合出品(연합출품)	Co-Presented by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도진강호
	In Association With	긴급구원 더레스큐
联合出品人(연합출품인)	Associate Executive Producer	긴급구원 더레스큐
	Co-Executive Producer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Union Publisher	도진강호
制片人(제편인)	Producer	특수요원 배곰 열대왕사 긴급구원더레스큐
	Film Producer	도진강호
	Production Manager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總製片人(총제편인)	General Producer	긴급구원 더레스큐
	Chief Producer	열대왕사
監製(감제)	Produced by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Executive Producer	열대왕사
	Co-Executive Producer	수호무적
策劃(책획)	Associate Producers	열대왕사
	Line Producer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总策劃(총책획)	Production Executive	열대왕사
	General Line Producers	긴급구원 더레스큐

▲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디트에 기재된 중국어 표현에 대한 복수의 영어식 표기 예시

영어 표기	중국어 표기	해당 영화
Production Company	出品公司(출품공사)	도진강호
	制作公司(제작공사)	도진강호
	承制(승제)	원세컨드
Executive Producer	出品人(출품인)	긴급구원 더레스큐 더컨테이션: 바이러스의습격
	执行制片人(집행제편인)	특수요원 배곰
	监制(감제)	열대왕사
Co-Executive Producer	联合出品人(연합출품인)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監製(감제)	수호무적
Co-Producers	联合制片人(연합제편인)	열대왕사
	联合監製(연합감제)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Production Executive	总策劃(총책획)	열대왕사
	執行監製(집행감제)	더 컨테이션: 바이러스의 습격

▲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디트에 기재된 영어식 표현에 대한 복수의 중국식 표기 예시



정리하자면, 중국어로 표기된 제작직군의 직무표기가 동일하더라도 영어표기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보인다. 이는 중국 영화업계 자체로 표기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듯하다. 심지어는 그 뜻이 다소 다른 표현도 여과 없이 쓰는 것을 보아서는 직군 내 직무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딧 분석

중국영화 오프닝 크레딧은 4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이 중국영화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의 경우도 제작과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회사가 많다보니 중국의 경향처럼 흘러갈 수 있는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그런 경향의 작품들을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하여 중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 조사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지금까지 한국영화 및 4개국의 오프닝 크레딧 사례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영화 오프닝 크레딧 재정립 방안의 필요성 및 수정·보완 사항을 살펴보았다. '2018년 한국영화 크레딧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한국영화 크레딧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극장 스크린을 통해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영화 크레딧은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이들(제작/창작군, 현장군, 후반작업군, 배우)의 전문적인 업무가 잘 표현됨으로써 개별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여야 한다는 대다수 영화인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오프닝 크레딧은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한 창작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도구'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직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크레딧의 본원적 기능에 대한 요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영화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지만 영화 종사자들의 가치와 권위는 영화산업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그 반증으로 한국영화는 외국영화에서는 유사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자본 및 투자 관련 크레딧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제작투자, 투자총괄, 투자책임, 투자기획 등 영화 제작 현장에서 직무로 적용되지 않는 크레딧이 특히 2010년 이후 메이저 제작사에서 자체 생산, 투자 및 배급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사용하면서 투자사 내의 직책을 크레딧에 포함하는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은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인들의 실추된 역할과 권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투자사 및 공동 투자사 중심의 크레딧이 남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오프닝 크레딧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오프닝 크레딧 또한 창작물의 일부이기에 규정을 따로 두는 것도 문제로 보이지만 투자자 중심으로 치우치는 크레딧 또한 고민해볼 여지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영화의 공적 자본(영진위, 문체부 및 지자체 등의 제작지원)의 경우 오프닝 크레딧의 방향성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할 수 있었다. 반면에 크레딧 또한 창작의 일부로 인식하는 감독들의 최근 작품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창작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창작자 중심의 크레딧 표기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술 정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영화 예술은 자본(산업)의 지배력이 더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영화에서 창작자의 역할은 작아지고 투자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런 양상이 영화가 채 시작하기 전인 오프닝 크레딧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공동 투자자)들의 인명은 엔딩 크레딧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오프닝에서 굳이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영화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문제 인식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1년간 한국영화 20편의 크레딧 분석과 함께 4개국 영화 총 40편 가량의 오프닝 크레딧을 비교·분석·검토하였다. 비교적 많지 않은 작품 숫자임에도 현재 한국영화에는 투자사 위주의 인명과 회사명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직군을 책임지는 이가 아닌 회사의 대표가 영화 크레딧에 먼저 등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 시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사 대표자의 이름의 경우는 오프닝 크레딧에서 과감히 배제하고 회사명으로 표기를 통일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자 우선의 크레딧을 위하여 감독, 프로듀서, 각본을 우선으로 개별 작품에서의 기여도, 중요도의 순에 맞추어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오프닝 크레딧 표기에서 역할의 중복이 존재하는 제작, 프로듀서, 기획의 크레딧 표기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영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기획, 제작총괄 등의 크레딧 사용을 지양하고 제작사는 제작, 제작 책임자는 프로듀서로 명기함으로써 제작 직군 내 직무 혼선을 방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프닝 크레딧을 영화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프닝 크레딧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창작자 중심)이 우선되지 않는 '자본의 논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스템을 안고 있음이 명확하다. 오프닝 크레딧 인식 개선이야말로 영화인(창작자)을 지키는 일이며 한국영화산업을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일일 것이다.

오프닝 크레딧에 대한 결론은 미리 도출할 수 없으며 또한 영화 몇 편을 통해 단정할 수 없다. 이에 후속 연구가 절실하다. 그 방향성은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여론 조성 및 홍보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영화웹진> <이슈페이퍼> 영화종사자들의 '기고문', '저널'의 활용.
- 일반 관객들에게 오프닝 크레딧 인식 개선 위한 설문 조사



2) 창작자들의 의견 수렴

오프닝 크레딧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영화 관련자(영화감독, 영화협회)들의 내부 의견 청취 및 인터뷰 진행.

3) 투자·배급사 대상 협의 진행

투자(부분 투자)·배급사 중심의 오프닝 크레딧 등재 관행을 줄이기 위해 영진위가 국내 주요 투자·배급사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설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4) 창작자 중심의 오프닝 크레딧 구성 권고

·공적자금(영화기금 등)이 투입되는 투자조합 및 각종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작품에 대해 창작자가 우선되는 오프닝 크레딧을 구성할 것을 권고 또는 권유.

5) 창작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

〈드라이브 마이카〉, 〈타르〉, 〈군함도〉 등의 작품 사례와 같이 창작자 중심 오프닝 크레딧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작 주체들의 자발적 노력 필요.



참 고 자 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크레딧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한국영화 크레딧 개선에 관한 연구」,
2018

영화진흥위원회, 「세계영화 투자배급 시스템」, KoBiz - Korean Film Biz Zone

글 : 김필남(영화평론가)

자문 : 이종철 (독립연구자 및 문화기획자)

